

NEWS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가톨릭간호사협회 전국 피정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김남초)는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마산교구 교육회관(마산시 구산면 소재)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요한 16,24)라는 주제로 전국 가톨릭 간호사회 전국 피정이 열렸다. 14개 교구 중 제주도를 제외한 13개 교구 260여명이 참석한 이번 피정은 각 교구가 해마다 돌아가며 주최하는 형태로 이번에는 마산교구가 주최하여 시행되었다. ‘치유자’를 주제로 마산교구장 안명옥 주교의 특강이 있었고, ‘기쁨이신 하느님’을 주제로 마산교구 가톨릭 간호사회 지도신부인 최경식 신부의 특강, 그리고 마산교구 총대리 신부인 유영봉 신부의 집전과 마산교구 성령봉사단의 찬양으로 미사가 진행되어 회원들과 함께 봉헌하였다.

안명옥 주교는 “간호사인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헌신하는 치유자이며 환자를 사랑하고 아끼고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헌신하는 사목자이기도 하다. 환자들은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불안에 사로잡히고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보장되었었다는 생각 때문에 사고가 마비되어있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 진정한 사목자로서의 간호사의 재능은 무한대이며, 역할 수행이 생계수단이 아닌 진정한 인술이어야 한다. 약이나 주사를 주는 의료 기술뿐 아니라 믿음과 신뢰의 영성을 갖춘 사랑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봐야 한다. 사랑은 믿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관계이면 환자들은 진실을 열어 놓을 수 있게 된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허혈하는 부인의 병을 낮게 했듯이 간호사와 환자의 만남에서 사목자로서의 간호사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신비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사목은 알고 있는 병의 원인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이며, 그들의 인생관을 찾아주는 것이고, 또 사목은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최경식 신부의 강의에서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내 존재의 근원인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내 안의 상처를 분석하거나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내 상처를 인정하고 하느님께 맡겨드리면 하느님 안에서 치유되는 것이다’는 내용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멋진 자연 속에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된 피정이었다.



보수 교육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2008년도 보수 교육이 11월 12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 1002호 강의실에서 ‘성가정과 가족 건강 - 아동 학대 및 성폭행 예방-’의 주제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보수 교육은 부산가톨릭대학교 한정애 교수의 “학대받은 아동의 심리와 상담”, 서울아산병원 수간호사 김은숙 선생의 “아동 학대 및 성폭행 예방” 그리고 문종원 신부의 “학대 아동의 영적 치유”로 이어졌다.



한국가톨릭약사회 정기총회 및 병원약사 협의회 창립미사 및 특강

대림절인 12월 20일(토) 오후 5시 30분부터 밤 8시까지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1003호실에서 ‘우리의 기다림(그리스도인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을 모시고 병원약사협의회 창립미사와 정기총회를 갖게 되었다. 현재 약 150여명의 병원약사가 파악되었다.